

충청남도 복서단에 위치한 태안군. 많은 이들은 아직도 이곳을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가 난 장소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조만간 불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안에 380MW급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IGCC)와 1000MW급 석탄 화력발전기(2기)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발전설비까지 포함하면 태안은 그야말로 국내 최대 에너지 클러스터로서 확고한 명성을 쌓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건설본부는 무엇보다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있다. 대규모 국가기반시설 건설현장인 만큼 그 어떤 가치보다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태안건설본부에서 어떤 안전관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찾아가 봤다.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로 전력산업발전에 기여 한국서부발전(주) 태안건설본부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자율안전관리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태안건설본부는 국책연구과제로 IGCC발전기와 국내 최대의 유연탄 발전설비인 태안 9, 10호기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5조 원에 달하고, 하루 출력인원은 2000명에 이른다.

이는 곧 각 도급사 차원의 안전관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넓은 현장에서 건축, 토목, 기계설치 등의 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태안건설본부에서는 도급사의 안전관리 인력을 풀(pool)로 묶어서 이들로 하여금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안전관리의 책임을 도급사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곳 본부 직원들은 2인 1조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상주안전감리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중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모바일 안전실천방'을 운영하면서 현장밀착형의 안전관리를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을 활용해 공사 관련자 모두를 하나의 그룹에 포함하고, 현장 점검 시 확인된 유해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즉각

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태안건설 본부는 발주처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과 훈련은 재해예방의 기본

태안건설본부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 비상대응 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형락 본부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아픔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선 이번 에 얻은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안전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 생활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 태안발전본부 내에 건립·운영 중인 ‘종합안전체험장’은 박 본부장의 이 같은 신념이 발현된 결과물이다. 종합안전체험장은 3D영상 등을 통해 11가지 재난 재해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시설이다. 태안건설본부에서는 이곳 직원과 도급사 직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체험교육을 시행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와 비슷한 안전관리활동은 또 있다. 태안건설본부에서는 화재, 태풍 등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모의 대응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법정 안전관리수준 이상의 자율안전관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안전활동 전개

태안건설본부에서 전개하는 안전활동의 밑바탕에는 ‘화합’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태안군 보건소와 연계한 금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근로자 간 친목도모를 위해 스토리텔링 디너간담회(팀 간 미팅)를 실시하여 타 처·실, 부서 간 업무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렴, 개선해 나가면서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이곳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활동들의 효과가 안전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앞으로 태안건설본부에서는 기존의 안전관리제도들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전과 같이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곳의 안전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





미니인터뷰



박형락 본부장

기본수칙 준수로 재해예방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추락, 낙하 등의 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해를 일컬어 '재래형 재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그만큼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각종 안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도,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케 한다면 건설업 재해는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현장밀착형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속적인 현장맞춤식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는 곧 무재해 현장을 구축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